

2. 금융·외환시장

영향으로 반락하여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가. 국제금융시장

장기금리 큰 폭 하락

2020년 중 미국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이에 대응한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및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¹⁹⁾ 등의 영향으로 3월 중 대폭 하락하였다.²⁰⁾ 4~7월 중에는 경제활동 재개 등의 상승요인과 미·중 갈등²¹⁾,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하락요인이 교차하면서 등락하였다가 이후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지표, 미 의회의 추가 경기부양책²²⁾ 및 코로나19 백신 기대²³⁾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독일 장기금리는 미국 장기금리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며 등락하였다가 이후에는 유럽 지역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강화,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강화 등으로 하락폭이 다소 확대되었다.

신홍국의 EMBI+(Emerging Markets Bond Index Plus) 가산금리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3월 중 대폭 상승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코로나19 백신 기대 등의

표 II - 9. 주요국 국채금리 및 리스크 프리미엄

(기말 기준, %, bp)

	2019		2020		
	3월	6월	9월	12월	
국채금리(10년물)					
(미국)	1.92	0.67	0.66	0.68	0.91
(독일)	-0.19	-0.47	-0.45	-0.52	-0.57
리스크 프리미엄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¹⁾	195	394	290	271	222
(신홍국 CDS 프리미엄) ²⁾	173	347	195	230	150
(신홍국 가산금리) ³⁾	298	543	441	412	338

주: 1) 10년 만기 회사채(Baa등급) 수익률 기준

2) 18개 신홍국의 CDS 프리미엄을 가중 평균

3) JP Morgan EMBI+(Emerging Markets Bond Index Plus) 기준

자료: Bloomberg, JP Morgan, Markit

글로벌 주가 큰 폭 하락 후 상승 전환

미국 주가지수(다우지수)는 2020년 1~2월 중 양호한 경제지표 및 기업실적 발표 내용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사상최고치를 경신²⁴⁾하였다가 3월 들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주요국의 이동제한조치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급락하였다. 이후 미 정부와 연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빠르게 반등하였으며 특히 11월 이후에는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해소, 추가 경기부양책 의회 통과, 코로나19 백신 승인 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

19) 미 연준은 두 번의 비정례 FOMC 회의(3월 3일, 3월 15일)를 통해 정책금리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와 동일한 수준인 0.00~0.25%까지 인하하였다. 또한 국채 및 MBS 매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CP, MMF, 회사채, ABS 등에 대한 자산매입기구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출프로그램 등도 신설하였다.(3월 23일)

20) 다만 3월 10~19일 중에는 국제금융시장에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됨에 따라 미 달러화 유동성 확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시적으로 국채금리가 큰 폭(+60bp) 상승하였다.

21) 미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중국 책임 언급 및 신규 관세 부과 시사(4월 30일), 미 정부의 중국 화웨이사에 대한 규제 강화(5월 15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6월 30일), 미 의회의 중국 홍콩보안법 제정 관련 대중 제재 법안 통과(7월 2일) 등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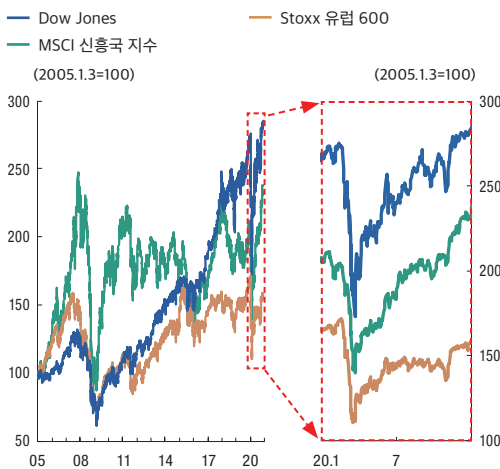
22) 미 의회는 3월 23일 약 2.2조 달러, 12월 21일 약 0.9조 달러 등 총 5차례의 경기부양책을 2020년 중 승인하였다.

23) 미 FDA는 Pfizer사(12월 11일), Moderna사(12월 18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을 승인하였다.

24) 미 다우지수는 2월 12일 29,551을 기록하였다.

치를 연이어 경신하였다²⁵⁾. 유럽 주가(Stoxx 유럽 600)는 미 주가와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유럽 주요국의 이동제한 조치 강화 등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전년 말 대비 4.0% 하락하였다. 신흥국 주가(MSCI 신흥국 지수)도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변화에 주로 영향받으면서 선진국 주가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였으나 10월 이후로는 글로벌 교역 개선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019년 말 대비 15.8% 상승하였다.

그림 II - 17. 주요 선진국 주가 및 MSCI 신흥국 지수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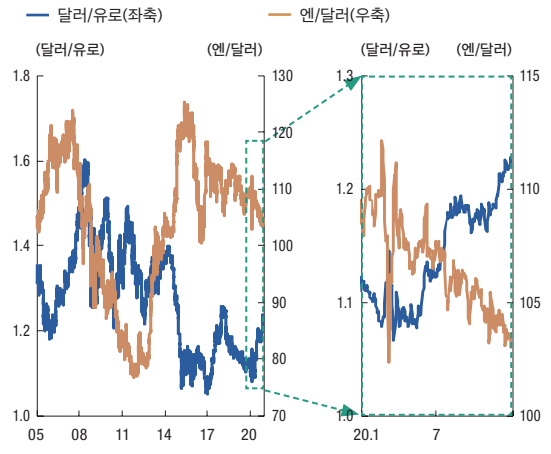
미 달러화, 유로화 및 엔화 대비 약세

미 달러화는 2월 중순까지 양호한 미 경제지표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다가 이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등의 약세요인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 등의 강세요인이 엇갈리면서 급등락하였다. 5

월 이후로는 연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의 영향 등으로 약세로 전환되었으며,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경향이 지속되면서 약세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미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도 3월 중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후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주로 영향 받으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그림 II - 18. 달러/유로 및 엔/달러 환율



자료: Bloomberg

나. 국내금융시장

(1) 금리

국내 장기금리 하락

2020년 중 국고채(3년) 금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2019년 말 1.36% → 2020년 말 0.98%, -38bp). 기간별로 보면 3월 중 코로나19의 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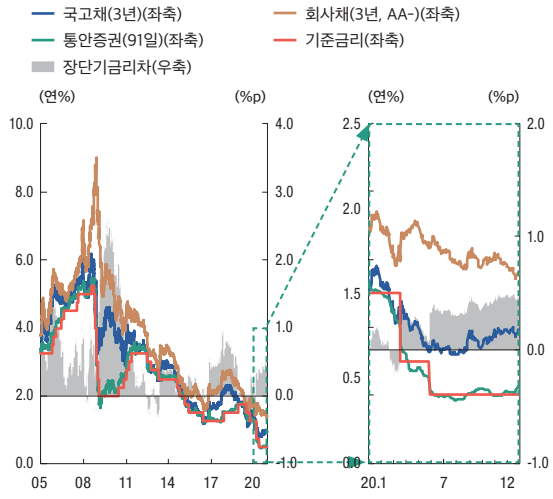
25) 미 다우지수는 2020년 말 30,606을 기록하며 사상최고치로 마감하였으며, 전년대비 7.2% 상승하였다.(S&P500지수 및 NASDAQ지수도 전년대비 각각 16.3%, 43.6% 상승하여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계적 확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3월, 5월 각각 -50bp, -25bp) 및 국고채 단순매입,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하향 안정되면서 8월 초순 사상 최저치(8월 5일 0.795%)를 기록하였다. 8월 중순 이후에는 미 경기부양 확대 기대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 국내 4차 추경 및 2021년도 정부예산안 발표에 따른 국고채 수급불균형 우려 등으로 상당폭 반등하였다.

통화안정증권(91일) 금리는 3~5월 중 기준금리 인하에 영향받아 큰 폭 하락한 후 대체로 기준금리 수준(0.50%)에서 등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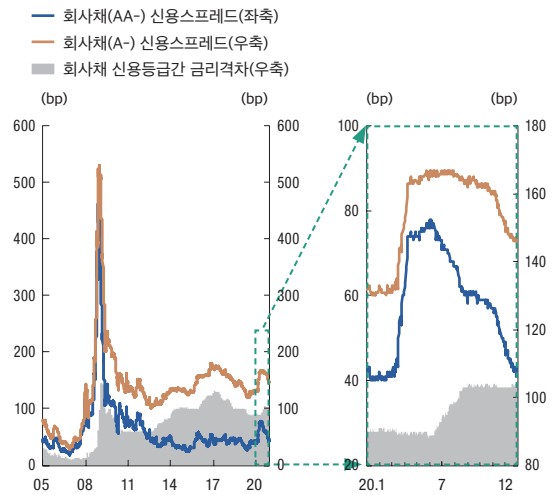
회사채(3년) 금리는 연간 기준으로는 하락하였으나 시기별로는 코로나19 및 정책대응 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하였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국고채 금리 대비)를 보면 3월 중 코로나19 충격으로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큰 폭으로 확대²⁶⁾되었다. 그러나 7월 이후 정부 및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화 대책 등에 힘입어 축소세로 전환되었으며 11월 이후에는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보급 시작, 국내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통한 비우량물 지원 지속 등으로 우량물(AA-) 뿐만 아니라 비우량물(A-)도 빠르게 축소되었다. 2020년 말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우량물(41bp)이 2019년 말 수준(42bp)으로 축소되었으며, 비우량물(146bp)의 경우 코로나19 충격 직후의 최고 수준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2019년 말 수준(132bp)을 상회하고 있다.

그림 II - 19. 주요 시장금리 및 장단기 금리차¹⁾



주: 1) 국고채(3년) 금리 - 기준금리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그림 II - 20. 회사채 신용스프레드¹⁾ 및 신용등급 간 금리격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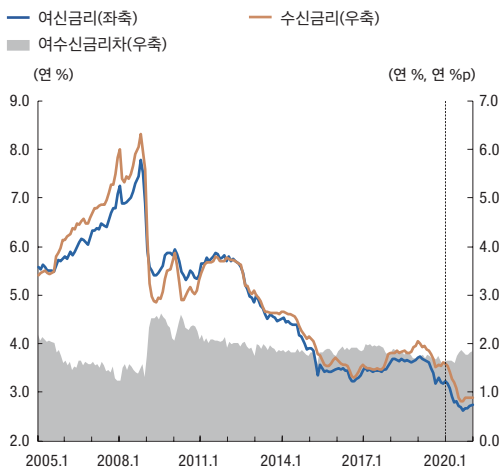
주: 1) 국고채(3년) 금리 대비
 2) 회사채(3년, A-) 금리 - 회사채(3년, AA-) 금리
 자료: 금융투자협회

26)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신용스프레드가 급격히 확대되었던 데 비하면 금번 확대폭은 매우 제한적인 편이다.

은행 여수신금리 하락

은행 여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2020년 12월 여신금리는 2.74%로 2019년 12월(3.22%)에 비해 0.48% 포인트 하락하였다. 여신종별로 보면 기업대출금리는 2020년 12월 중 2.73%로 0.63% 포인트 하락한 반면, 가계대출금리는 2.79%로 하락폭이 0.19% 포인트에 그쳤다.²⁷⁾ 2020년 12월 수신금리는 0.90%로 2019년 12월(1.6%)에 비해 0.70% 포인트 하락하였다. 여신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여수신금리차는 확대되었다.

그림 II - 21. 은행 여수신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2) 주가

코스피 급락 후 큰 폭 상승

코스피는 국내외 코로나19 전개양상에 주로 영향 받으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기간별로 보면 연초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2월 중순 들어 코로나19 확산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직전 고점 대비 35.0%²⁸⁾ 급락하여 글로벌 금융위기²⁹⁾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였다. 다만 3월 하순 이후에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로 큰 폭 반등하였다. 특히 11월 이후 미 정치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 백신공급 진전 및 주요 기업실적 개선 전망 강화 등으로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져 코로나 이전 최고치를 경신하며 2019년 말 대비 30.8% 상승한 2,873으로 마감하였다.

코스닥도 코로나19 사태에 크게 영향받아 코스피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며 2019년 말 대비 44.6% 상승한 980으로 마감하였다.

27) 이는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주요 지표금리인 장기 은행채금리의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던 데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 노력이 더해진 데 주로 기인한다.

28) 2020년 2월 14일 2,244에서 3월 19일 1,458을 기록하여 1개월 만에 35.0% 하락하였다.

29)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5개월에 걸쳐 50.3%(2008년 5월 16일 1,889에서 10월 24일 939) 하락하였다.

그림 II- 22. 코스피 및 코스닥지수



자료: 코스콤

(3) 금융기관 여수신

은행 수신 큰 폭 확대

은행 수신은 2019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예비자금 확보 등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전년대비 3배가량 확대되었다. 반면 정기예금은 예금금리 하락, 예대율 및 LCR 규제 완화에 따른 은행의 정기예금 유치 유인 축소 등에 기인하여 감소로 전환하였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MMF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직접투자 증가, 신용증권에 대한 시장 경계감 확대 등으로 감소로 전환하였다. 또한 기타펀드는 2019년 중 일부 사모펀드 손실 및 환매중단 사태,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등으로 증가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한편 신용협동기구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대체로 2019년과 비슷한 증가 규모를

나타내었다.

표 II- 10. 주요 금융기관 수신 (기간 중 증감액 기준)

(조 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은행 수신 ¹⁾	80.8	79.5	91.6	106.3	188.4
수시입출식	60.2	34.0	10.9	65.9	189.3
정기예금	19.4	28.8	72.2	48.3	-14.4
시장성수신 ²⁾	3.9	17.7	7.8	-14.6	14.6
자산운용회사	47.6	27.9	53.8	98.6	42.2
MMF	10.9	-7.0	-7.7	15.2	21.0
주식형펀드	-7.7	4.2	7.3	2.5	-10.0
채권형펀드	18.7	-8.6	6.4	15.7	-0.4
기타펀드 ³⁾	29.6	45.3	48.3	68.0	33.4
상호저축은행	6.6	6.9	8.6	6.1	13.2
신용협동기구 ⁴⁾	35.3	44.6	39.7	60.7	50.1

주: 1) 은행·중앙정부·비거주자 예금 제외 기준

2) CD, RP, 표지어음, 은행채

3) 파생상품·부동산·재간접·특별자산·혼합자산 펀드

4)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큰 폭 확대

2020년 중 기업대출은 2019년보다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은행 기업대출의 경우 대기업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 증대 및 유동성 확보 노력 등으로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중소기업대출도 정부 및 은행의 금융지원 등에 힘입어 큰 폭 증가하였다. 비은행 기업대출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큰 폭 확대되었다. 예금은행과 기타금융기관 등은 증가 규모가 2019년보다 크게 확대되었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도 증가로 전환하였다.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자금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가운데 전국 주택 매매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예금은행 기타대출은 주택자금수요에 생활자금 및 주식

투자 관련 자금수요가 더해지면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기타대출도 생활·사업자금용 대출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기타금융기관 등도 주택거래 및 주식투자 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표 II - 11. 금융기관 대출 (기간 중 증감액 기준)

(조 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기업대출	43.1	72.2	81.8	90.2	169.6
은행					
대기업	-9.9	-3.7	6.9	-1.8	20.9
중소기업	33.8	44.0	39.8	49.4	90.0
비은행 ¹⁾	19.3	31.8	35.1	42.5	58.8
가계대출 ²⁾	131.9	100.0	76.8	57.9	125.6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40.8	21.6	30.1	39.7	49.9
(기타대출)	12.9	21.6	22.4	14.9	32.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³⁾	42.6	22.6	6.8	-4.5	7.6
(주택담보대출)	14.2	10.8	-3.9	-10.4	-4.0
(기타대출)	28.4	11.8	10.7	6.0	11.6
기타금융기관 등 ⁴⁾	35.5	34.1	17.5	7.8	35.9

주: 1)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기준

2) 가계신용통계 기준

3)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탁, 우체국예금

4) 보험회사,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등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4) 외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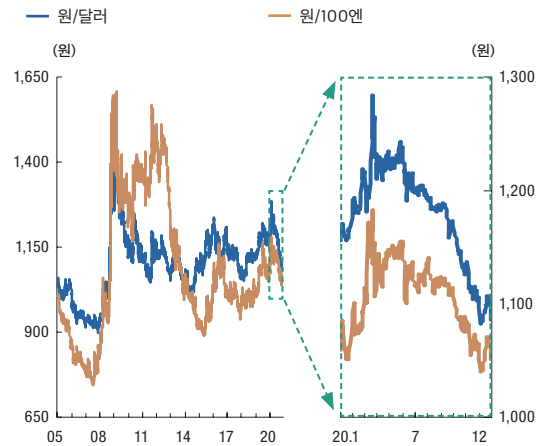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 급등 후 하락세 지속

원/달러 환율은 3월 들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심화, 미 달러화 수요 급증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285.7원³⁰⁾까지 상승하였다가 미 연준과의 통

화스왑계약 체결 및 동 자금을 활용한 외화유동성 공급, 주요국의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빠르게 하락하였다. 이후 미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6월 중에는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완화, 9~10월 중에는 양호한 국내 경제지표, 중국의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에 따른 위안화 강세, 11월 이후에는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해소, 추가 경기부양책 및 코로나19 백신 기대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2020년 말 원/달러 환율은 1,086.3원으로 2019년 말 대비 6.1% 하락하였다.

한편 원/엔 환율은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백신 개발 기대, 미·중 갈등 관련 소식, 미 추가 경기부양책 논의 및 대선 전개 양상 등에 따른 투자심리 변화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원/달러 환율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2020년 말 원/엔 환율(100엔당)은 1,051.1원(하나은행 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으로 2019년 말(1,059.6원) 대비 0.8% 하락하였다.

그림 II - 23. 원/달러 및 원/엔 환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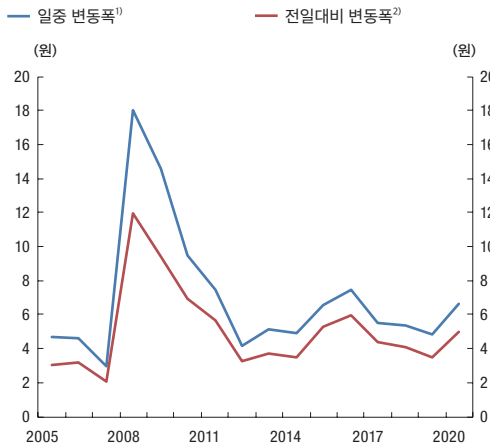
주: 1) 원/달러는 서울외환시장 종가, 원/100엔은 하나은행 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하나은행

30) 2009년 7월 14일 1,293.0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20년 중 원/달러 환율의 일중 및 전일대비 변동폭은 3월 중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함에 따라³¹⁾ 각각 일평균 6.6원 및 5.0원으로 2019년(각각 4.9원 및 3.5원) 대비 확대되었다.

그림 II - 24. 원/달러 환율 변동폭



주: 1) 일중 변동폭(당일 최고가 - 당일 최저가)의 평균

2) 전일대비 변동폭(당일 증가 - 전일 증가) 절대값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외환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큰 폭 하락 후 상승

외환스왑레이트³²⁾(3개월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험회피심리가 크게 강화된 가운데 증권사 등의 단기 외화자금 수요가 급증³³⁾함에 따라 3월 중 큰 폭 하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³⁴⁾를 기록하였다. 이후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실시, 내외금리차 플러스 전환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³⁵⁾ 2020년 말에는 2019년 말 대비 0.88% 포인트 상승한 -0.04%를 기록하였다.

통화스왑금리³⁶⁾(3년물)는 국고채 등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위험회피심리 강화, 스왑레이트 급락 등으로 3월 중 큰 폭 하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하반기에는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국고채 금리 반등 등으로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2020년 말에는 2019년 말 대비 0.41% 포인트 하락한 0.31%를 기록하였다.

31) 원/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은 2020년 3월 19일 49.9원으로 유럽 재정위기 이후(2011년 10월 4일 100.7원) 최고치를, 전일대비 변동폭은 2020년 3월 19일 40.0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년 4월 30일 58.7) 최고치를 각각 기록하였다.

32) 외환스왑은 양측 거래 당사자가 현재의 계약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이다. 외환스왑레이트는 현물환율 대비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선물환율-현물환율)/현물환율)를 연율(%)로 표시한 것이다.

33) 글로벌 주가 급락에 따라 해외주가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ELS) 발행 증권사들의 해외선물 증거금 납입(마진콜) 목적의 외화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34) 2020년 3월 24일 -2.98%를 기록하며 2008년 12월 24일(-3.38%)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35) 다만 12월 중에는 연말요인 등으로 외환스왑레이트가 일시적으로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36) 통화스왑은 양측 거래 당사자 간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한다는 점에서 외환스왑과 유사하지만 만기가 주로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 동안 이자를 교환한다는 점, 최초 교환 시 및 만기 시 교환 원금이 동일하다는 점 등이 다르다. 통화스왑금리는 리보 금리와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를 말한다.

그림 II - 25. 외환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자료: 한국은행, 한국자금융재(주), 한국 톨렛프레본 외국환중개(주)